

교회를 지킬 제자 디모데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전서-

사무엘상3:19-20, 디모데전서1:3-7

정윤돈 목사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있어서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닮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서 사탄에게 속고 불순종하고 불신앙하여 죄를 지어 이 땅에서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주시고 신분과 권세 주셔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 할 수 있는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창세기 3장의 문제인 불신앙, 불순종의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고 지교회의 제자가 되게 하시며 세계복음화, 다락방 전도운동의 제자가 되어서 전 세계 RUTC와 237 센터를 세우는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고 대표적인 수제자 중 한 명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이다.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에베소의 교회에서 사역 중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였다.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어디를 가든지 디모데처럼 인정받기를 축원드린다. ‘나는 디모데와 같이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직장이나 어디에서든지 사장님에게 위탁받을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시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낸 표면적인 이유는 에베소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을 지킬 교회를 보존하기 위해 성도들과 제자들이 꼭 미리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교회시스템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하였던 것이다. 이 역할을 감당하고 담당할 수 있는 인물이 디모데였던 것이다. 교회 안에서 복음 가진 사람만이 가정문제, 정신문제, 우상문제, 재앙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건강하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시스템을 갖춘 교회가 있어야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복음과 말씀이 흐려지니까 종교화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위치를 잘 알고 교회를 살리는 제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린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질서, 규모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나 성도가 복음중심, 전도와 선교중심, 교회중심에서 벗어나서 신앙이 종교화, 형식화, 습관화, 기복주의로 되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강단메시지를 포럼하고 복음을 전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전도자가 있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축복하신다. 중요한 것은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가 복음화되고 내가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란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이 임한다.

사무엘과 디모데는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를 지킨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은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면서 복음운동을 했던 제자들이었다. 특히 사무엘은 악한 엘리제사장 밑에서 훈련을 받았지만 엘리제사장을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언약궤 앞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천명을 받았고, 나중에는 그가 한 말은 한 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교회를 살릴 영적인 지도자로 쓰임 받았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살리는 사무엘과 같은 램네프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1. 첫 번째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미리 볼 것, 미리 알 것, 미리 가르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

(1) 디모데전서를 보면 당시 에베소교회 안에 들어온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들이 있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고, 미리 예방하라고 디모데에게 당부하였다.

① 그 문제들은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복음이 아닌 다른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이나 세속적인 것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속으면 안 된다. 비성경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성경과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이단이기 때문이다.

②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말씀하신다. 또, 4장 7절 말씀에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하고 말씀하고 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 안에는 그 나라와 그 지역의 전통과 종교가 파고 들어와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경우가 많았다.

③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모데전서 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행위구원자’나 ‘율법연구가’나 ‘율법주의자’들이 되는 것이 문제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켰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을 때 구원받는 줄 믿기를 바란다. 복음화 되면 윤리, 도덕, 모든 면에 있어서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말세지말에 영육간의 흠과 티가 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말씀하고 있다. 지금 내가 안 되는 것과 내 절대목표를 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내가 복음 받았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방종이다. 안 되더라도 우리는 예배,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그리스도로 가야 한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것이다.

④ 또한 이단에 빠져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단들은 대부분 정통 복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많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들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미혹의 영과 귀신이 충만하기 때문이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단들은 외식, 가식과 거짓에 능숙하다.

⑤ 당시 에베소지역에는 금욕주의자들과 아직도 구약에서 정한 음식에 대한 율법주의자들이 있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약에 있는 율법적인 것들은 모두 끝내셨다.

(2)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성도들이 미리 조심하고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전염병 예방수칙과 같은 교회의 수칙들은 무엇일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몇 가지 알아보려고 한다.

① 교회 안에서 경제적인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장사, 단단계, 투자유치, 돈을 빌려주거나 꾸주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는 치유받는 곳이지, 교회 안에서 경제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

② 교회 안에서의 이성교제는 신중해야 하고, 사귀기 전에 교역자들에게 미리 보고하고 지도와 허락을 받은 후에 교제해야 한다.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교회를 살리는 교제를 해야 한다.

③ 교회에서는 또한 정치적인 발언과 행위는 삼가해야 한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④ 이단과 이단사상을 조심해야 한다.

⑤ 교역자들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성경공부 등의 모임에 참여하거나 보고하지 않고 개인적인 모임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⑥ 성도들은 술, 담배 등 중독에 관계되는 행위를 끊어야 한다. 완전복음으로 가는 사람은 이것들이 필요 없다. 이것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것이다. 이것은 선교사들이 한국교회에게 물려준 건강과 경건에 위한 좋은 유산이다.

⑦ 교회의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각종위원회, 임원회 등에서 결의나 합의로 결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한다. 순종은 내가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고, 복종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따르는 것이다. 성도들은 따르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야 한다.

⑧ 새롭게 담당한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따르고 순종해야 한다. 그에 해당되는 분들은 구역장, 전도인, 임원, 담당중직자, 교역자, 담임목사 등을 들 수 있다.

2. 두 번째로, 사도바울은 교회를 지킬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스스로 미리 알고 지켜야 할 수칙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1) 복음의 절대목표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겠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것이 복음의 목적이다.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교회를 살릴 제자들이 도전해야 할 전도자의 절대목표이다.

(2) 교회를 살릴 제자가 되려면 먼저 복음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성도들이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오직복음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함께 읽겠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기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초창기에 '성도들 중에 가장 낮은 자'라고 고백했지만, 나중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살릴 수 있는 것이다.

(3) 복음의 사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야 한다고 사도 바울을 말씀하고 있다. 특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기도는 237나라의 서밋들을 위한 기도이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한다.

(4)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6절에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경건한 삶을 살도록 지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교회지도자들과 특히 사역자들은 다음과 같은 전도자의 삶과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도전하고 갱신해야 할 것이다. 3장 2절에서 11절을 보겠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3장 7절에서 11절이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불신자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한다)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노회나 총회의 역할이 이것이다. '여자들이 이와 같이 정중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이어서 4장에서 6장까지도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고 있다.

(5) 영적인 리더자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이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

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들이 하는 62가지 훈련과 237 훈련이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이다. 이 훈련들은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도전하시기 바란다.

(6) 성도들은 교역자들이 나이가 어리다 하더라도 겸손하게 대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교역자들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누구든지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네 자신과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복음 전하는 생명운동하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한다.

(7) 돈은 일반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고, 또 부자들은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선한 사업에 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10절과 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이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찢렸도다' 돈에 열매이면 언젠가 올무에 걸린다. 비전과 전문성에 몰두하면 돈이 따라오는 것이 당연하다.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참사랑 RUTC의 말씀의 근거이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온전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지키고, 보전하고, 도전해야 할 다양한 복음적인 교회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렇게 디모데는 교회를 지킬 시스템을 세우는 전도자로 위탁을 받았던 것이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오늘도 결론으로 디모데전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1. Covenant, 언약이다. 디모데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참된 복음의 사람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뛰어 넘어 교회를 지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의 비전은 237나라 모든 족속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교회 시스템을 알려주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돌보는 일에 24시간 집중한다면 모든 꿈은 성취 되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집중기도 속에서 우리교회 RUTC와 우리교회 237센터의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나가야 하겠다.
5. Practice, 실천이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교회를 살리는데 나의 부족함 점은 무엇인지, 우리교회를 3천제자의 교회로 세우기 위해 내가 헌신해야 할 작은 실천은 무엇인지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with, immanuel, oneness의 은혜가 교회를 지키고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길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부흥시키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떠나서 한국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살리며 전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참 복음과 참 교회시스템, 복음 RUTC를 증거하고 전달하는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교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